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대한민국의 회복 성경: 마태복음 23장 35-39절 (Tag:)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23:35-39)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스가라);속1:1에 나오는 자일 수도 있고-순교 기록 없음, 참고 대하24:20-22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혹은 손자) 스가라일 가능성도 있음.-순교 기록 있음.-원래 예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실수로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로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음. 만약 예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말하셨다면 문맥상 순교자 처음부터 끝까지로 해석할 수 있음.-역대하는 히브리식으로 맨 마지막의 책이므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게 된 이유에 대한 진단과 그 결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울분과 열정이 가득한 설교 말씀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국에 적용하자.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

23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종교적인 지도자들 특히 율법주의에 싸여 있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는 그로 인해서 야기된 어쩔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셋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23장 전체적으로는 암울하고 느와르noir한 분위기의 말씀이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다.

1. 지도자들이 헤게모니hegemony에 집착하고 있다. 본질적 기능을 잃었다.(헤게모니를 얻어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2. 핑계가 선행과 진리를 훼손하게 하지 말라.

3.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남겨진 형식만 지나치게 지킨다.(전체적으로는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일에 몰두해 있다. 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치 않았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채소의 십일조, 박하의 십일조

-낙타는 삼킴<> 하루살이는 걸러냄(이율배반의 그물)

-속에는 탐욕과 방탕<>겉은 대접을 정결케 함. (허례 허식)

-속에는 유골<>겉은 회칠

4. 지도자는 섬기는 일을 하는 자이다.

<중간 교훈>

*정의로운 자, 정직한 자, 겸손하고 섬기는 자, 힘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자, 개인의 안일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자와 연합해야 한다!

둘째는 그로 인해서 야기된 어쩔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이 부분이 대단히 암울한 부분이다.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여러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계시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 시켰다.

-하나님의 뜻이란 자신이 간절히 원해야 이를 수 있다.(왜냐면 마귀가 갖가지 핑계거리를 제공하기 때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정의로 삼으셨고, 비전으로 삼으셨고, 생명으로 삼으신 것을 말한다.

-핑계를 만들어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이다.

예;

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서원한 것은 지키라.’ 이다.(언행일치)

-당시에는 과학적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람의 말이나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요즘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물증이 없는 것은 무효라고 여긴다. 그로 인해서 말을 하고서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불리할 경우 거짓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하시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힘을 실어서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두고 맹세 하였다.

-그러나 그 맹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기 싫었다. 그래서 그 맹세를 무효화 하고 싶어서 ‘성전에 있는 금’ 으로 맹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7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

는 성전이나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성전을 두고 맹세함으로 만약 어겼을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자신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가 되면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수는 없다고 발뺌한다. 핑계를 만들어서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자기의 형편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로 헛맹세한 죄를 물으신다는 뜻이다.

-이것은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언제든지 형편이 변하면서 적당하게 거짓말 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그 원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명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잃어버린 정신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진리가 살아있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 좋은 특성(장점)에는

1. 자기주도성이 특별함 -독창성, 창조적, 열정적으로 나타남. (주도권다툼, 비판, 이기주의, 욕심 등은 빛나간 더럽혀진 성질)
2. 정서동정성이 특별함 - 충성, 협력, 단결, 인정 등으로 나타남. (한, 미련, 애증, 애착 등은 빛나간 더럽혀진 성격)
3. 성결영성이 특별함 -예절, 경건, 지조, 헌신 등으로 나타남. (체면, 고집, 수치, 사악함, 우상숭배 등이 빛나간 더럽혀진 성품)

그런데 마귀가 이런 좋은 특성들을 더럽히고 그 초점을 엉뚱한 곳에 쏠리게 한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복된 성품을 정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경건생활이다.(가장 자연스러움)

한국의 중요한 망령된 행실 3가지

- 우상숭배 및 미신
- 분열과 비판(심지어 가족끼리도)
- 율법주의(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에 빠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하는 나라는 여기에서 벗어난다.)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 근거도 많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회복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교회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은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민족의 특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성경: 마태복음 6장 1-8절
(Tag:)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님.

-의의 목적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임. 상을 받기 위함임.

-상>자랑 ? =>상은 몰래 받는 것.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
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
으시리라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
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6:1-8)

하나님이 몰래 보시는 의로운 행동

1. 구제

2. 기도

3. 핵심기도, 진심기도,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의식주를 위한 기도는

특히 절제되고 간결하게 한마디만 하라.